모든 苦로부터 자유자재한 실천적 방안



아비담마 실천하기
아신 자나까비왐사 지음
현암 옮김
담앤북스 / 2만원

이해 쉬운 번역과 상세한 주석 달아
전달에 그치지 않고 성찰 이끌어내
"존재 실상 꿰뚫어 보는 것이 본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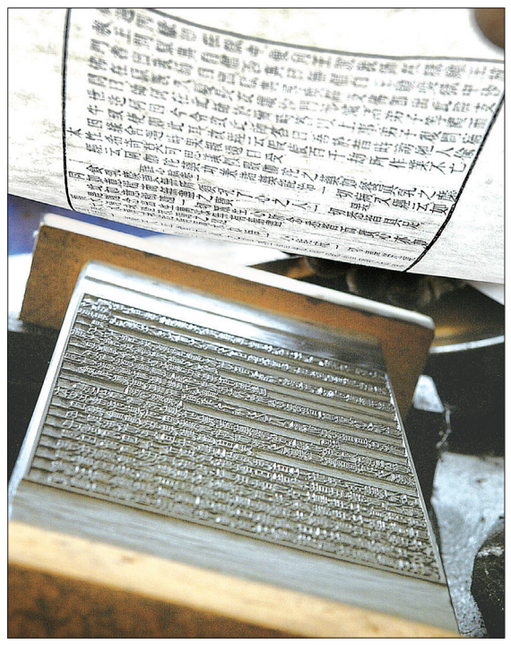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부처님 최상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아비담마를 부처님 직설이 아니라고 여기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익을 저버리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직접 전하신 최고의 가르침인 아비담마에서 법의 고결함과 수승함을 모두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담마 실천하기〉는 미얀마의 대표적인 학승 아신 자나까비왐사(1900~1977)가 1933년 저술한 〈Ko Kyint Abhidhamma〉(영역본명 Abhidhamma in Daily Life)를 우리말로 옮기고 주석을 덧붙인 책이다.

아비담마는 불교의 경(經)·율(律)·논(論) 삼장(三藏) 가운데 논장, 즉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주석과 연구 등을 통틀어 일컫는 것을 말한다. 아비담마는 승법(勝法, 뛰어난 법)이라 불리지만, 복잡한 체계와 생경한 용어로 일반인들에게는 낯설고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책은 미얀마 정부로부터 '최승대현자(最勝大賢者)' 칭호를 받은 저자가 명료한 설명과 적절한 비유를 곁들여 아비담마의 가르침을 쉽게 풀어 쓴 것으로, 오래 전부터 '아비담마 지침서'로 평가받았다. 저자는 인간의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존재와 세계를 통찰하고, 궁극에는 부처님처럼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자재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한다.



해인사 팔만대장경 인경 모습. 현대불교 DB

역자인 현암 스님은 미얀마 국제불교대학과 마하시선원에서 수행정진하며 오랜 기간 불교 철학과 아비담마를 참구하다가 한국 불자들에게 아비담마의 가르침을 좀 더 쉽게 전하기 위해 이 책을 번역했다.

책은 단순히 아비담마 이론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자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앎으로써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낸다. 아울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생활 속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수행법을 제시해 개인의 실재적 삶에 미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아비담마는 '개념'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인간의 고정된 사유를 깨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흔히 '화가 난다'고 표현하지만, 아비담마는 그것을 마음속 '성냄'이 드러나는 과정으로 보고 그 작용을 마음, 마음부수, 물질로 세분화해 설명한다. 그래서 책에서는 마음, 마음에 결합하는 마음부수, 기질, 10가지 업, 물질, 열반 11가지 주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그것들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며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준다. 먼저 인간의 몸과 마음을 세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대상과 세계를 분명히 보는 눈이 조금씩 확장될 수 있게 구성했다.

아비담마에서는 무조건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나기에 선한 행위이더라도 불선한 의도를 갖고 행하면 불선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한다. 즉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서 벗어나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보는 것이 아비담마의 본질이다.

내면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것을 더 많이 중시하는 현대사회에 〈아비담마 실천하기〉가 던지는 화두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아비담마라는 불교 철학을 깊이 알고자 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실천을 통해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지혜를 선사할 것이다.

역자인 현암 스님은 1999년 삼각산 내원사에서 호암 정수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영축총림 통도사 승가대학 졸업(46회) 후 미얀마 국제불교대학과 마하시선원에서 4년간 수행 정진했다. 2020년 동국대학교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에서 초기불교 강사로 재직 중이다. 그 밖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아사리,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운영위원 등을 맡고 있다.

봉암사 비명 3기 우리말 완역
〈碑銘〉



봉암사 비명
진범 스님 펴냄
조병활 역주
맑은소리맑은나라
2만5000원

문경 봉암사에 현존하는 탑 3기, '지증 대사 적조 탑비명(통일신라)' '정진 대사 원오 탑비명(고려)' '상봉당 대사 정원 탑비명(조선)'의 비명(碑銘)을 한글로 번역하고 역사적 가치를 연구한 책 〈봉암사 비명〉이 출간됐다.

역주자 조병활 박사는 비명의 원문을 가급적 쉬운 우리말로 옮겼으며, 비명에 고사와 성어가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상세한 주석을 달았다. 인용문과 원문을 반드시 대조했으며,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표점을 찍어 혼란을 막고, 주석이 있는 역주문과 주석이 없는 역주문을 함께 실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먼저 '지증 대사 적조탑비명'의 역주다. 신라 경명왕 8년(924)에 조성된 이 탑의 비명에 대해 조 박사는 "이 역주가 가장 어려웠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식인(최치원)의 글이라 다르긴 다르다"며 감탄했다. 고운(孤雲) 최치원이 적은 이 비명은 완성까지 8년이 걸렸다. 종교와 문학, 역사, 철학 등 다양한 문헌에서 채집한 방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고운의 관점이 잘 표현되어 있어 명문으로 평가받는다. 선진시기의 문헌에서 길어온 고사(古事), 위진남북조 시대의 인물과 역사에서 뽑아 온 성어(成語), 불가와 유가, 도가 등 다양한 전적(典籍)에서 추출한 내용, 이들을 융합해 고운 특유의 문체로 표현한 수사(修辭)는 훌륭하다. 또한 '시경' '서경' 등에서 가져온 내용을 정교하게 엮은 표현이 비명에 가득하다. 근세 최고의 석학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석전 스님(石顚, 1870~1948)이 붙인 주석도 주목할 만하다.

이어 고려 광종 16년(965)에 조성된 '정진 대사 원오 탑비명'의 역주다. 정진 대사가 900년부터 924년까지 중국의 강남, 강북 지역에서 수행

상세 주석에 국제표준 표점
인용문과 원문 대조해 소개
봉암사 주지 진범 스님 원력

한 내용, 고려 초기의 정세, 정진 대사와 고려 태조, 혜종, 정종, 광종과의 관계를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상봉당 대사 정원 탑비명'은 조선 숙종 42년(1716)에 조성됐다. 조 박사는 "내용은 상대적으로 평이했으나 문체나 사조는 앞의 두 비명에 견줄 만하다"고 평가했다.

〈봉암사 비명〉은 봉암사 주지 진범 스님의 후원으로 집필·출간됐다. 봉암사 소식지 〈희양산문〉에 실린 글을 새로 정리했다. 비명을 통해 봉암사 건립의 내력과 연혁을 전하고, 지증 대사, 정진 대사, 상봉 대사의 수행과 한국 불교사를 조명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원불교 학술총서 22·23·24권

선과 유식



선과 유식
다케무라 마키오 지음
권서용 옮김
운주사
2만3천원

유식불교는 인도 대승불교의 두 기둥 가운데 하나로, 미륵에 의해서 정초되고 세친에 의해서 완성된 인도 교학불교의 최종 열매이다. 한편 선불교는 초조인 달마로부터 중국의 육조 혜능에 의해 완성된 깨달음의 가르침으로, 대표적인 수행불교이다. 그렇다면 선불교와 유식불교는 전혀 다른 것인가?

책 〈선과 유식〉은 불교의 중요한 두 가지 사유체계이자 수행체계인 유식불교와 선불교의 특징과 차이점, 그리고 이 둘을 바라보는 중도적 관점에 대해 설명한다. 상반된 입장인 듯한 선과 유식이 대승불교라는 큰 흐름 안에서 같은 지향과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다양한 각도에서 탐구한다.

박재완 기자

무에 대한 탐구



무에 대한 탐구
마커스 분 · 에릭 캐즈딘 · 티머시 모턴 지음
김용규 번역
운주사
2만5천원

"왜 비평이론과 문화이론에서 불교의 위치는 잘 보이지 않는가?" 책 〈무에 대한 탐구〉는 비평이론과 문화이론을 전공한 세 명의 저자가 불교가 오늘날의 비평이론과 문화이론, 나아가서 현실정치적 맥락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추적한다.

비평이론에서 불교의 '무(無)', 즉 공(空)의 이론적 가능성을 새롭게 조명하는데, 불교와 비평이론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그것들이 실제로 부딪혀온 현실적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적응력이 있는지를 탐구한다.

불교에 대한 고전적, 문헌학적 연구가 아니라 변화하는 현대사회와 비평이론의 장에서 불교의 역할을 탐구한다.

박재완 기자

불교윤리학 입문



불교윤리학 입문
데미언 키온 지음
조은수 옮김
운주사
1만5천원

'불교윤리학'은 '불교'와 '윤리학'이라는 독립된 두 분야가 만나 새롭게 형성되어 최근 크게 관심을 끌고 있는 지적 탐구의 한 분야이다. 이 책은 영국의 불교학자로 초기불교와 불교윤리학 부문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데미언 키온 교수가 쓴 불교윤리학 입문서다.

첫 장에서는 서양 현대윤리학의 이론 전통에 비추어 불교의 도덕이론에 대해 어떤 해석과 평가가 가능한지를 비교하고, 제2장에서는 동서윤리의 특징과 차이점 및 유사성에 대해 비교한다. 제3장부터 8장에 걸쳐서는 동물과 환경, 성과 젠더, 전쟁과 폭력과 테러리즘, 낙태, 자살과 안락사, 유전자 복제 등 가장 최근에 등장한 윤리적 주제를 탐구한다.

박재완 기자

불자들이 주고받는 품격 있는 선물!

40년 전통, 불서출판의 명가
민족사에서 펴낸
경전 시리즈는 특별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 법보시야 말로 최상의 공덕입니다.



선물용 경전 세트 1
전3권 | 값 38,000원
• 법구경
석지현 옮김 | 12,000원
• 숫타니파타
석지현 옮김 | 12,000원
• 화엄경
김지견 옮김 | 14,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2
전3권 | 값 34,000원
• 유마경
무비 스님 옮김 | 11,000원
• 아함경
돈연 옮김 | 11,000원
• 금강경
이중표 옮김 | 12,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3
전2권 | 값 25,500원
• 극락의 경전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한보광 옮김 | 13,000원
• 효행의 경전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지장경》
일지 옮김 | 12,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